

문화 교류

유네스코 등재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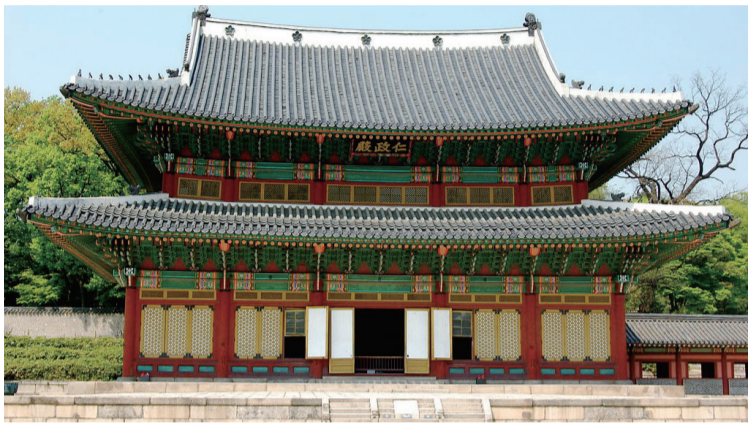
1 해인사 장경판전(1995년 등재, 장경판전 외관)
경상남도 함천군 소재
해인사 장경판전은 13세기에 만들어진 세계적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만 8만여 장을 보존하는 보고로서, 해인사의 현존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함화한 등공과 방습,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만가의 진열 장치 등이 매우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고려대장경만이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2 석굴암과 불국사(1995년 등재, 불국사)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불국사는 토함산 서쪽에 위치하고, 동쪽의 석굴암과 쌍을 이루고 있으며, 신라 고도의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석굴암은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적 열정, 예술혼이 총체적으로 실현된 기념비적인 불상이다.



3 중묘(1995년 등재, 중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조선 시대 왕가의 조상을 모시는 유교 사당이다. 건축물 배치 원리에 따라 좌청룡에 해당하는 궁궐의 동쪽에 세워졌다. 부속 건축물로는 영녕전, 공신당, 칠사당 등이 있다.



4 창덕궁(1997년 등재, 인정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창덕궁은 태종 5년(1405년)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로,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선조 40년(1607년)에 중건하기 시작하여 광해군 5년(1613년)에 재건되었다. 창덕궁은 1610년 광해군 때 정궁으로 사용한 후부터 1868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258년 동안 역대 제왕이 정사를 보살피 온 법궁이었다.



5 수원 화성(1997년 등재, 화서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정조 때 축성된 평성이다. 도성 남쪽을 방위하는 기능과 함께 성내의 행궁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동양 철학과 서양 건축 기술이 반영된 대표적 성곽이다.



6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년 등재, 고창 고인돌)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화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청동기 시대의 돌무덤인 고인돌은 세계적으로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또한 고인돌은 선사 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고, 사회 구조, 정치 체계는 물론 당시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사 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적이다.

세계 유산

세계 유산이란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세계 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 유산, 복합 유산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16건(복합 포함)의 세계 유산이 있는데,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15건, 자연 유산이 1건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은 수도권(5건)과 경상북도(3건)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1392년 조선이 개국한 이래 600여 년 동안 수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서울에는 왕릉, 궁궐, 유교 사당 등이 많다. 또한 수원에는 화성이, 광주에는 남한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경주 역사 유적 지구가 있어 신라의 역사적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역사 마을인 양동 마을도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조선 시대에 화려하게 꽃피웠던 양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경상북도 안동에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씨족 마을이면서 양반 마을인 하회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외에도 북한 지역에 2건(고구려 고분군, 개성 역사 유적 지구), 경상남도에 1건(해인사 장경판전), 전라남·북도와 인천광역시에 1건(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특별자치도에 1건(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은 한라산 천연 보호 구역,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 성산 일출봉 옹화구 3개 지구로 구분된다. 이와 더불어 충청도·전라도에 1건(백제 역사 유적 지구), 경상도·전라도·충청도에 2건(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한국의 서원)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세계 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덤군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무덤군에는 청동기 시대의 지석묘군, 고구려 시대의 적석총, 신라와 조선 시대의 왕릉이 포함된다. 무덤에는 당대의 세계관과 장례 전통, 제례 전통이 깃들여 있다. 무덤과 더불어 건축물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창덕궁은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건축물과 조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목조 건물인 해인사 장경판전은 실내의 통풍, 방습, 온도 등을 적절히 유지하여 대장경판을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역사 유적 지구는 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각 시대를 대표하는 뛰어난 건축물과 기념물, 유적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곽은 경기도의 동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남한산성과 수원 화성은 북쪽의 개성, 서쪽의 강화와 함께 네 방위에서 왕도를 방위하던 성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함께 축성술의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전통을 간직한 역사 마을과 종교 같은 건축물이 있다. 역사 마을인 하회 마을과 양

세계 유산의 등재 연도

등재 연도	세계 유산	인류 무형 문화유산	세계 기록 유산
1995	1 해인사 장경판전 2 석굴암과 불국사 3 중묘		
1997	4 창덕궁 5 수원화성		1 훈민정음 2 조선왕조실록
2000	6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7 경주 역사 유적 지구		
2001		1 중요 제례 및 중요 제례악	3 적지심계요결 4 승정원일기
2003		2 판소리	
2005		3 강릉 단오제	
2007	8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5 조선왕조지계 6 해인사 대장경판 및 계 경판
2009	9 조선 왕릉	4 강강술래 5 남사당놀이 6 명산제 7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8 차용무	7 동의보감
2010	10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와 양동	9 가곡 10 대목장 11 매사냥	
2011		12 줄타기 13 택견 14 한산 모시짜기	8 일성록 9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2012		15-1 아리랑	
2013		16-1 김장 문화	10 난중일기 11 세마물 운동 기록물
2014	11 남한산성	15-2 조선 민요 '아리랑'(북한) 17 농악	
2015	12 백제 역사 유적 지구	15-2 김치 담그기 전통(북한) 16 콜다리기	12 한국의 유교책판 13 KBS 특별 생방송 '이산'기록물
2016		17 제주 해녀 문화	
2017			14 조선 왕실 어보와 어책 15 국제 보상 운동 기록물 16 조선통신사 기록물 17 무에도보통지(북한)
2018	13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18 씨름(남북 공동)	
2019	14 한국의 서원		

문화재청(2019)

동 마을에는 현재도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 시대의 사회적 구조와 유교적인 전통이 잘 반영되어 있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한국 불교의 역사적 전개를 보여 주고 있는 유산으로 한국의 다양한 불교 신앙이 산사의 역사적 구조물과 전각, 유물, 문서 등에 잘 남아 있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 시대 핵심 이념인 성리학을 보급하고 구

현한 곳으로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하는 성리학 관련 문화적 전통의 증거가 남아 있다. 중요에는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와 함께 왕가를 기리는 의례와 음악, 무용 등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자연 유산으로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있다.



7 경주 역사 유적 지구(2000년 등재, 월지 동굴)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경주 역사 유적 지구는 신라 천년의 고도(高都)인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곳은 불교 미술의 보고인 남산 지구, 천년 왕조의 궁궐터인 월성 지구, 신라 왕을 비롯한 고분군 분포 지역인 태릉지 지구, 신라 불교의 정수인 황룡사 지구, 왕경 방어 시설의 핵심인 산성 지구로 구분되어 있다.



8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2007년 등재, 성산 일출봉 옹화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은 한라산,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등이다.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순상 화산체로, 360여 개의 오름과 용암 동굴을 지니고 있다.



9 조선 왕릉(2009년 등재, 간원릉)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소재
조선 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서울 사릉(정릉, 한인릉, 선정릉, 태강릉, 의릉), 서울 동쪽(동구릉, 충유릉, 경릉, 시릉, 영녕왕), 서울 서쪽(서오릉, 서릉릉, 안릉, 파주 상릉, 파주 장릉, 김포 정릉, 용강릉), 강원도 영월(정릉)에 나누어 있다.



10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양동(2010년 등재, 하회 마을)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마을 이름을 하회(河回)라 한 것은 낙동강이 'Z'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되었다. 풍산 류씨가 주류를 이루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양반과 서민의 생활이 공존하고 있으며, 민족적 전통과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다.



11 남한산성(2014년 등재, 성곽 남문)
경기도 광주시 소재
조선 시대의 왕도를 동쪽에서 방위하던 산성이다. 높고 웅장한 지형을 이용하고 있어 방어에 유리하다. 병자왜란 때 천군의 주력 부대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던 곳이다.



12 백제 역사 유적 지구(2015년 등재)
5~7세기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동아시아 왕국들 사이의 교류와 그 결과로 나타난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의 확산을 보여 주는 고고학적 유적이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군, 건축물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 준다.



13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2018년 등재)
산사는 한반도 남쪽 지방에 위치한 7개 불교 산지 승원(통도사, 부석사, 불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으로 이루어져 있다. 7~9세기 경 창건된 이 사찰들은 신앙과 영적 수행, 승려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로 한국 불교의 역사적 전개를 보여 주고 있다.



14 한국의 서원(2019년 등재)
한국의 서원은 조선 시대 성리학 교육 기관의 유형을 대표하는 9개 서원으로 이루어진 연속 유산이다. 이는 한국의 성리학과 문화적 전통에 대한 탁월한 증거이다.

인류 무형 문화 유산

우리나라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 현재까지 20건이 등재되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은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의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

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의 보편성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인류 무형 문화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식이나 의례가 4건, 인류 무형 문화유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식이나 의례가 4건,

놀이가 5건, 노래가 4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대목장, 매사냥, 줄타기, 맥전, 한산 모시짜기, 김장 문화, 제주 해녀 문화가 각각 1건씩 존재한다.



1 중요 제례 및 중요 제례악 2001년 등재. 중요대제형영위문화재
중요 제례와 중요 제례악은 중요에서 이루어지는 제향 의식과 제사를 드릴 때 연주하는 기악, 노래, 춤을 말한다.



2 판소리 2003년 등재. 판소리 기능 보유자
판소리는 소리꾼이 고수의 장단에 맞춰 청, 말, 흥짓을 섞이하여 구연하는 우리 고유의 민속극이다.



3 강릉 단오제 2005년 등재. 강릉 단오제위원회
단오 전후에 강원도 강릉 지방에서 행하는 마을굿이다. 풍년을 빌고 재앙을 쫓기 위해 서낭신에게 줄을 풀며 각종 민속놀이도 한다.



4 강강술래 2009년 등재. 강강술래보존위원회
정월 대보름날이나 팔월 한가위에 남부 지방에서 행하는 민속놀이로,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방방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5 남사당놀이 2009년 등재. 남사당놀이보존회
남사당놀이는 남사당패가 농촌을 돌며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기를 하는 놀이를 말한다.



6 영산재 2009년 등재. 영산재보존회
영산제는 죽은 사람을 위한 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다.



7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2009년 등재. 제주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제주 칠머리당에서 해녀들이 영등할머니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의식이다.



8 처용무 2009년 등재. 처용무보존회
처용무는 액운을 쫓기 위한 의식으로, 궁중 무용에서 처용탈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한다.



9 가곡 2010년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체 곡을 붙여서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전통 음악이다.



10 대목장 2010년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74호
나무를 다루는 기술을 전통적으로 목질, 목공, 목수라 한다. 그 중 궁중, 사찰, 가옥 등 큰 건축물을 짓는 것을 대목(大木)이라 불렀고, 그 일을 하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이라 한다.



11 매사냥 2010년 등재. 매사냥 기능 보유자
매사냥은 흥연된 매를 이용하여 맹이나 작은 짐승을 잡는 행위를 말한다.



12 줄타기 2011년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나 줄꾼이 줄 위를 걸어 다니면서 아래 가지 채주를 보이는 놀이이다.



13 맥전 2011년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유명한 동족으로 음주하다가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 무예이다.



14 한산 모시짜기 2011년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14호
충남 한산 지역에서 모시실을 재료로 삼아 직물을 짜는 일을 말한다.



15-1 아리랑 2012년 등재
15-2 조선 민요 '아리랑'(북한) 2014년 등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 남한에서는 정삼과 진도 아리랑이 유명하고, 북한에서는 평양을 위시한 전역에 구전 아리랑이 존재한다.



16-1 김장 문화 2013년 등재
16-2 김치 담그기 전통(북한) 2015년 등재
김장은 겨우내 먹기 위해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또는 그렇게 담근 김치를 말한다.



17 농악 2014년 등재
잡단 농사일을 할 때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한, 악기가 곁들여진 춤과 노래이다.



18 줄다리기 2015년 등재
풍년을 기원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비농사 문화에서 널리 행해지는 놀이이다.



19 제주 해녀 문화 2016년 등재
잡나 혹은 장수라고 불리는 제주 해녀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세대 간 전승되는 물집, 장수곡, 해녀노래 등을 말한다.



20 씨름 2018년 등재
두 선수가 허리와 한쪽 허벅지에 실바를 두른 채 상대의 실바를 잡고 여러 기술을 이용해 반대편 선수를 쓰러뜨리는 대한민국의 대중적인 놀이이다.

세계 기록 유산

세계 기록 유산은 유네스코가 고문서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기록 유산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세계 기록 유산에는 책, 문서, 편지 등 여러 종류의 유산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유산은 대부분 책이고, 일기와 기록물도 일부 있다. 1997년 처음 2건이 등재된 이래 2년 간격으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현재 17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 등재 건수는 아시아에서 1위, 세계에서는 5위에 해당하여 기록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 준다. 이 기록물 가운데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일성록, 난중일기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동의보감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 기록 유산 가운데 조선왕조실록,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새마을 운동 기록물은 여러 장소에 분산 보존되어 있다. 직지심체요절은 고종 때 국외로 유출되어 현재 프랑스 국립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는 2017년에 등재된 '무예도보통지'가 있다. 이는 평양직할시와 서울특별시에서 보관되어 있다.



3 직지심체요절
2001년 지정, 국보 제303호,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고려 공민왕 21년(1372)에 백운화상이 석가모니의 직지인심경성성물의 뜻을 그 중요한 대목만 뽑아 해설한 책으로, 우왕 3년(1377)에 인쇄되었다. 1972년 유네스코 주최 세계 도서의 해에 출품되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본으로 공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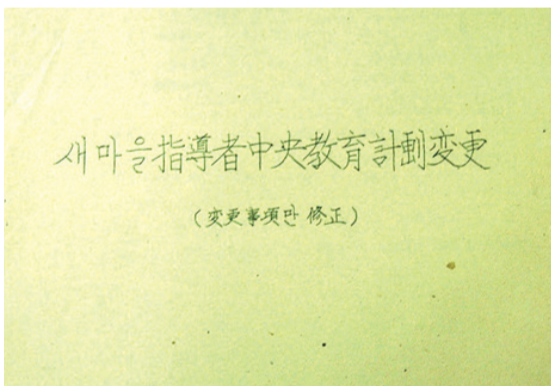
4 승정원일기
2001년 지정, 국보 제303호,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승정원은 조선 시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다. 1623년부터 1910년까지 승정원에서 처리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행정 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기록한 일기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7 동의보감
2009년 지정, 국보 제319호, 서울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선조의 명을 받아 어의 허준(1539~1615)이 집필하여 1610년(광해고 3년)에 완성하고 1613년에 간행한 의학 책이다. 일반 백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한 세계 최초의 '공공보건의서'이다.



8 일성록
2011년 지정, 국보 제153호,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일성록은 1760년(영조 36년)에서 1910년(통제 4년)까지 151년 동안 국정 운영 내용을 일기체로 정리한 국왕의 일기이다. 임금의 입장에서 매년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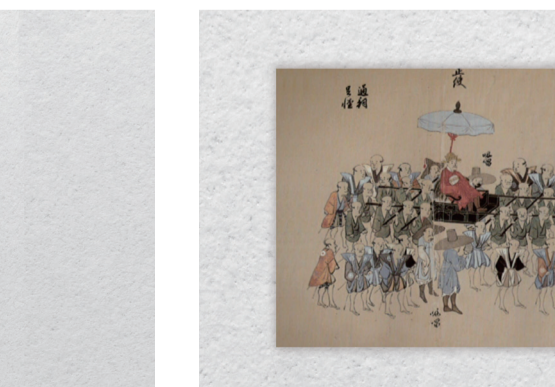
11 새마을 운동 기록물
2013년 지정, 대전시 국가기록원, 서울시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장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추진한 새마을 운동 과정에서 생산된 대통령 연설문과 결재 문서, 사진, 명성 등 약 22,000여 건의 자료이다. 새마을 운동은 빈곤 퇴치를 위한 국가 발전의 한 모델이자 민권 협력의 성공적 사례이다.



12 한국의 유교책판
2015년 지정, 안동시 한국학진흥원 소장
조선시대에 718종의 사책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으로, 305개 문종과 서원에서 기록한 총 64,22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교책판은 시공을 초월하여 책을 통한 후학이 선학의 사상을 탐구하고 전승하여 소통하는 '텍스트 커뮤니케이션'의 원형이기도 하다.



19 국제 보상 운동 기록물
2017년 지정, 서울시 한국금융사법률관, 국립고급박물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대구시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 소장
국가가 진 배를 국민이 갚기 위해 1907년부터 1910년까지 벌어진 국제보상운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1900년대 초 일본의 외채로 한국의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외채로 인한 망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제 보상 운동을 일으켰다.



16 조선통신사 기록물
2017년 지정,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조선 시대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 단절된 교류를 회복하기 위하여 만든 외교 사절단에 관한 기록물이다. 한일 양국의 외교 문서, 여행 기록, 문화 기록, 서화 작품 등 총 111건, 33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훈민정음
1997년 지정, 국보 제70호, 서울시 간송미술관 소장
조선 세종 28년(1446)에 훈민정음 28자를 세상에 반포할 때 써야만 판각 원본이다. 제작 원리가 과학적이고, 배우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문자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2 조선왕조실록
1997년 지정, 국보 제151호,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 사회·경제·문화·정치 등 다양한 걸쳐 기록되어 있어 그 당시 통치자의 정책과 교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5 조선왕조실록
2007년 지정,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남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조선 시대 왕실이나 국가 행사의 주요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담겨 있고 있는 보고서이다. 조선 시대 600년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6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諸)경판
2007년 지정, 국보 제32호, 함창군 해인사 소장
대장경은 불교 경전의 총서를 가리킨다. 해인사 대장경판은 고려 시대에 간행되어 '고려대장경'이라고도 하며, 대장경 판수가 8만 여 개에 이르러 '팔만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오탈무 하나 없이 고르고 정밀하다.



9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
2011년 지정, 대전시 국가기록원, 광주시 5·18 기념재단 등 소장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정부나 국외, 시민 단체, 미국 정부 등에서 생산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기록물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기록물에는 민주화 과정에서 실사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제가 포함되어 있다.



10 난중일기
2013년 지정, 국보 제76호, 아산시 현충사 소장
난중일기는 이순신(1545~1598)이 임진왜란(1592~1598) 기간 중 군중에서 직접 쓴 친필 일기이다. 모두 8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시작부터 이순신이 노랑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7권의 기간을 망라하여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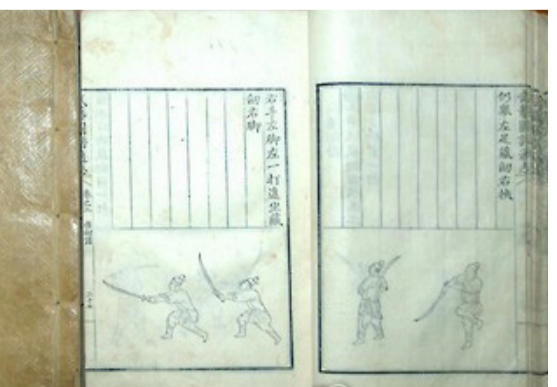
13 KBS 특별 생방송 '이신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년 지정, 서울시 한국학진흥원(KBS), 대전시 국가기록원 소장
한국방송공사(KBS)가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방송 기간 138일, 방송 시간 1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한 비디오 녹화본 테이프 463개와 담당 프로듀서 임무 수첩, 이신가족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 및 발명 신청서, 쿠키트, 기념 음반, 사진 등 20,522건의 기록물이다.



14 조선 왕실 어보와 어책
2017년 지정, 서울시 국립고급박물관 소장
조선조 건국 초부터 근대까지 57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불변했던 어보와 어책이다. 1392년부터 1966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책보를 제작하여 불변한 사례는 한국이 유일무이하다.



17 무예도보통지(북한)
2017년 지정, 평양시 인민대학습당,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790년 조선 시대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 검서관인 김두만 박사가 정몽주 소승과 함께 편찬한 무예 교본이다. 한문본 4권과 언해본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10월 북한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17 무예도보통지(북한)
2017년 지정, 평양시 인민대학습당, 서울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790년 조선 시대 정조의 명으로 규장각 검서관인 김두만 박사가 정몽주 소승과 함께 편찬한 무예 교본이다. 한문본 4권과 언해본 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10월 북한의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다.

연구와 탐험

극지와 해양에 대한 연구와 탐험은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영공의 한계를 넘어,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지구상 공동의 영역에 대한민국 과학 영토, 자원 영토를 확장하는 도전의 과정이다. 그리고 영토와 자원 확보의 국가 간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연구와 기술 역량을 발휘하여 전 지구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기후 변화와 지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의 과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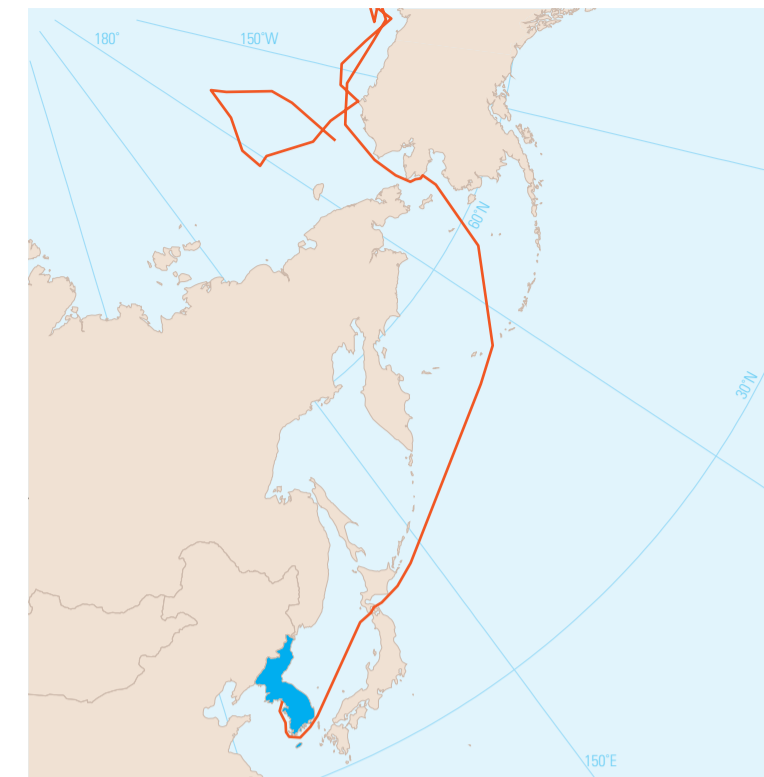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극지 연구와 탐험은 1988년 상주 과학 기지인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건설 이후 대한민국은 기지 주변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와 탐험 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4년에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를 건설하여 보다 남극점에 가까운 남극 대륙으로 연구와 탐험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09년부터 기지와 기지 주변의 측량 및 지도 제작을 수행하며 지리 정보를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17개, 2012년 10개, 총 27개의 남극 고유 지명을 「남극지명사전(CGA: Composite Gazetteer of Antarctica)」에 등록하였다. 북극에 대한 연구와 탐험은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설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북극이사회에서 정식(permanent) 옵서버 자격을 얻어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국내 최초의 극지 연구용 쇠빙선인 아라온 호가 건조되어 항해를 시작하였다. 아라온 호는 남·북극 결빙 해역에서의 독자적인 극지 연구를 수행하고, 항로를 개척하며, 남·북극 과학 기지에 대한 보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라온 호가 수집한 해저 지형 자료를 활용하여 2013년에는 '돌고래 해저 구릉군'과 '꽃신 해저늘'이라는 우리말 남극 해저 지명 2건을 국제수로 기구(IHO)에 등록하였고, 2014년에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주변 해역의 '잠정관해도'를 제작·발간하였다.

대한민국은 2002년 4월 29일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의 개설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남극과 북극에 모두 과학 기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군도(Svalbard Islands)의 스피츠베르겐섬(Spitsbergen Island)의 니알순(Ny-alesund)에 위치하고 있다. 경위도 좌표상의 위치는 북위 78도 55분, 동경 11도 56분이다. 북극 다산과학기지는 북극의 환경과 자원 연구를 위하여 개설하였으며, 북극권 동토층 관측과 측정,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기체의 순환 및 대기 중 미세 입자 분석, 북극권 토양 환경 및 생태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라온호 남극 항해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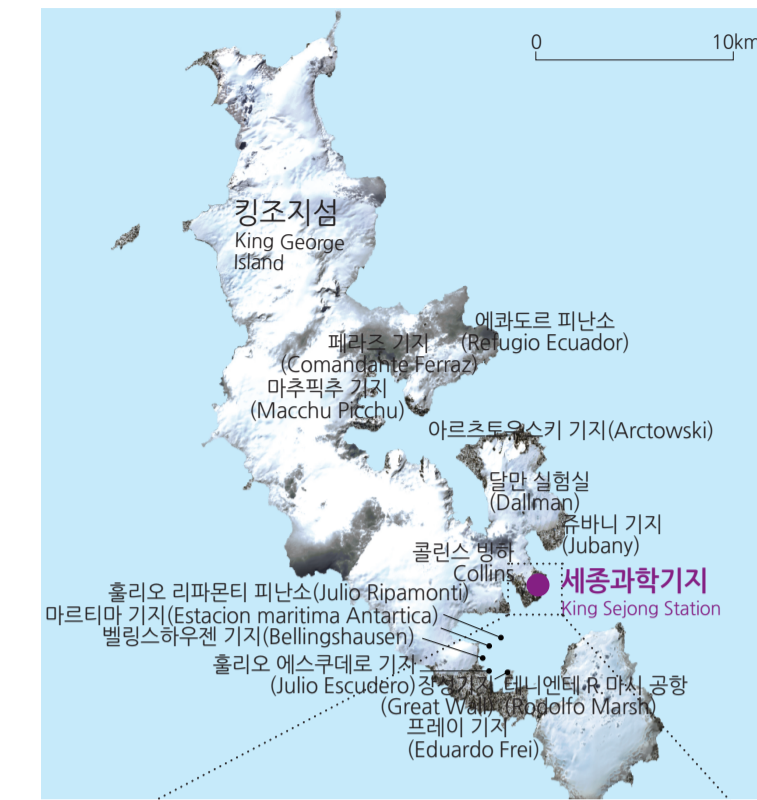


아라온호 북극 항해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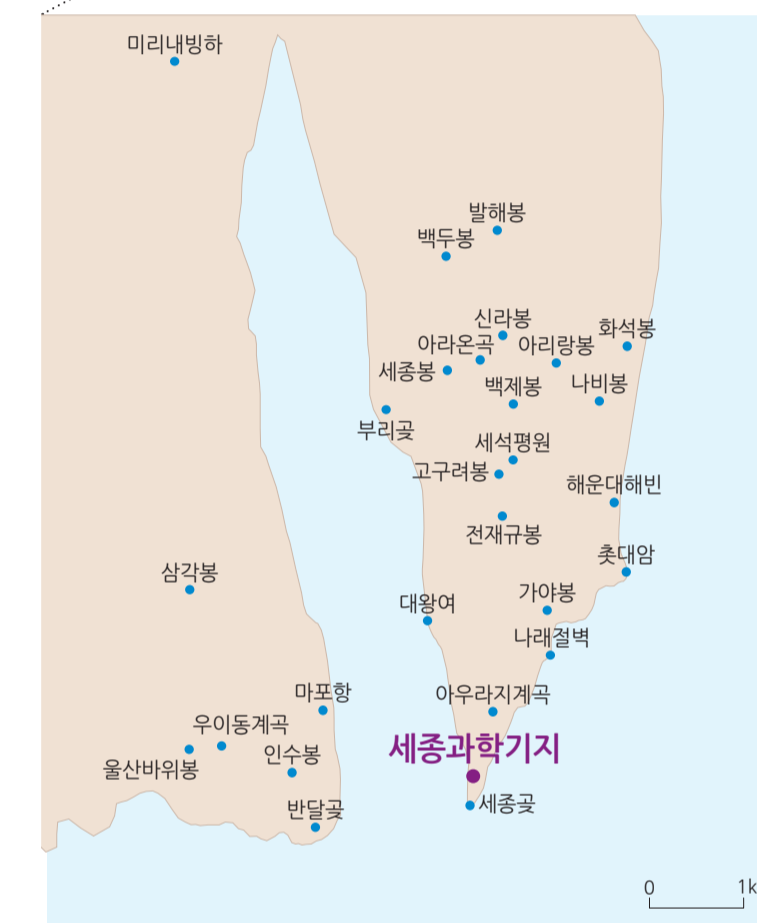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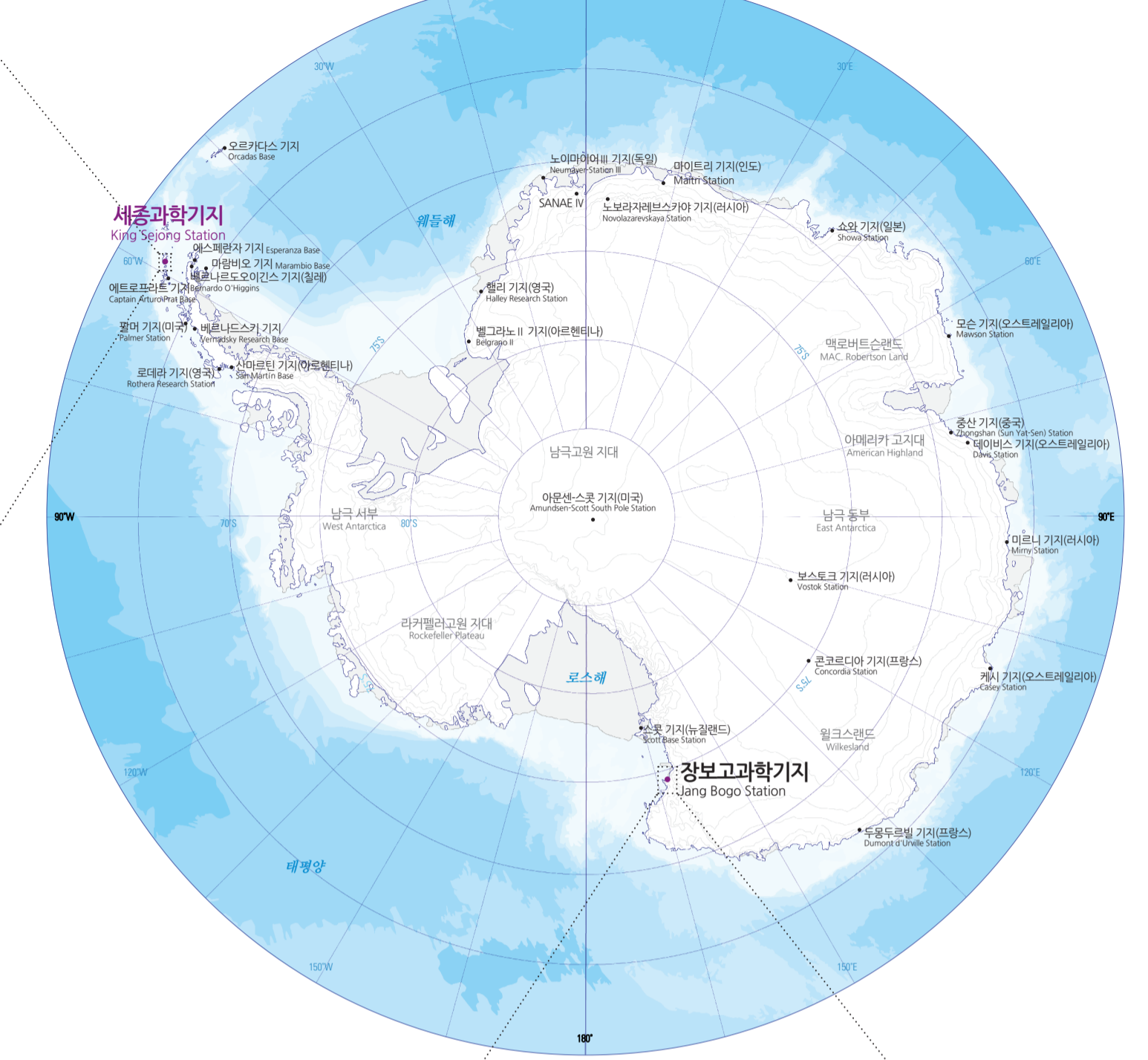


아라온호

남극 세종과학기지



각국의 남극 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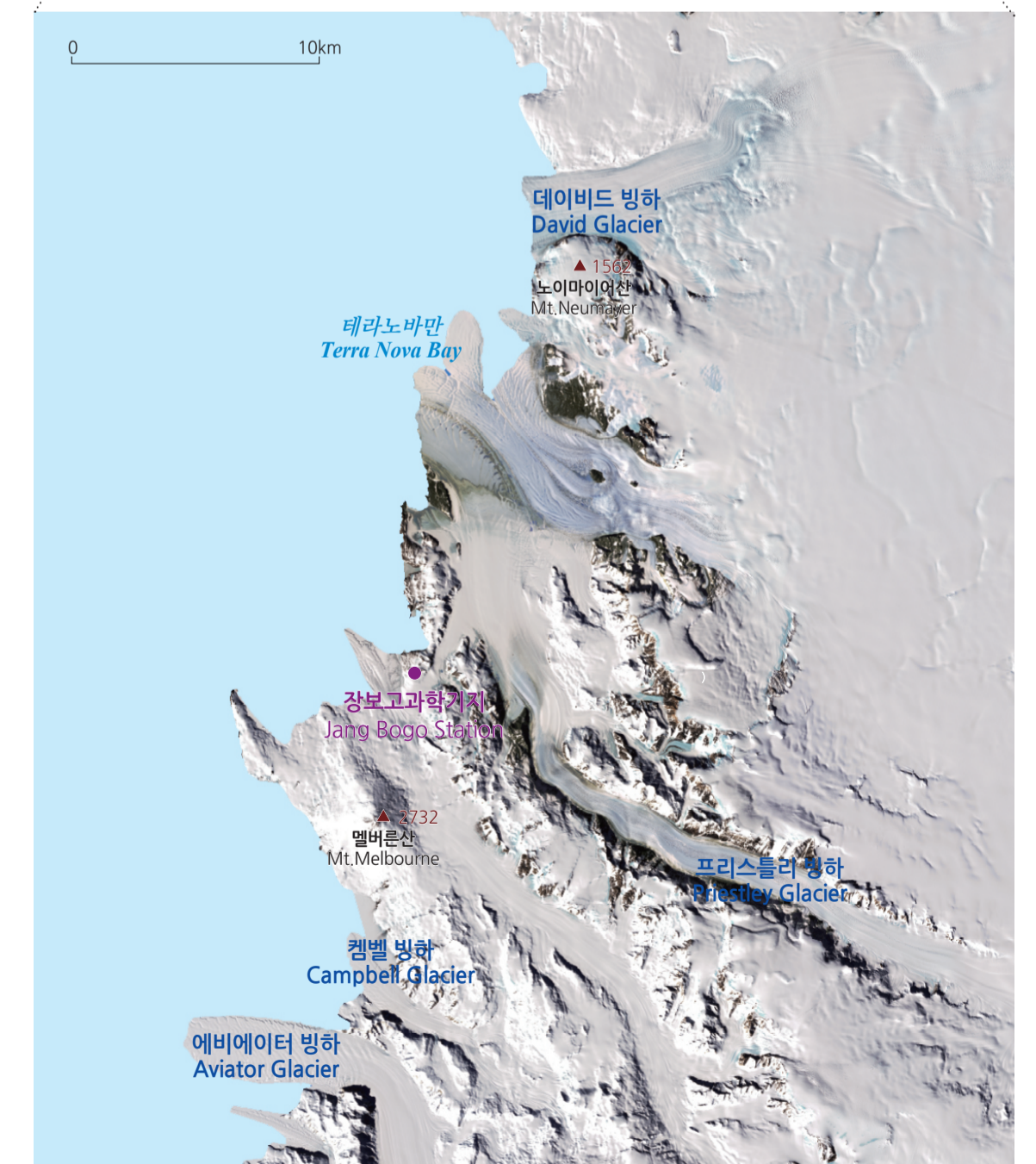


남극 세종과학기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북극 다산과학기지 기지촌



북극 다산과학기지

북극 다산과학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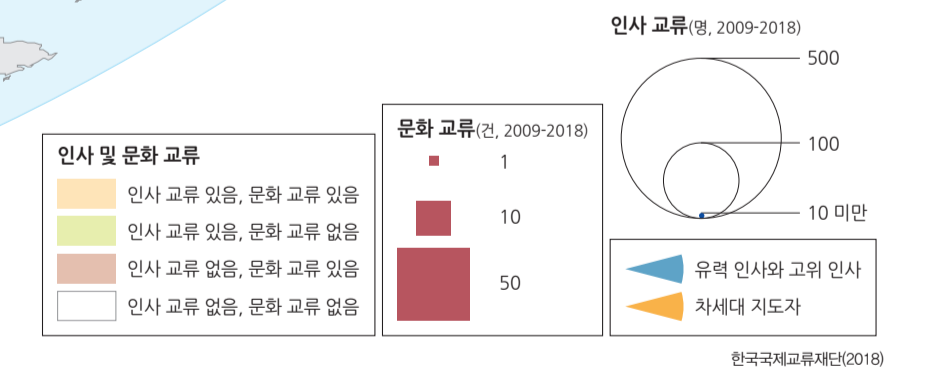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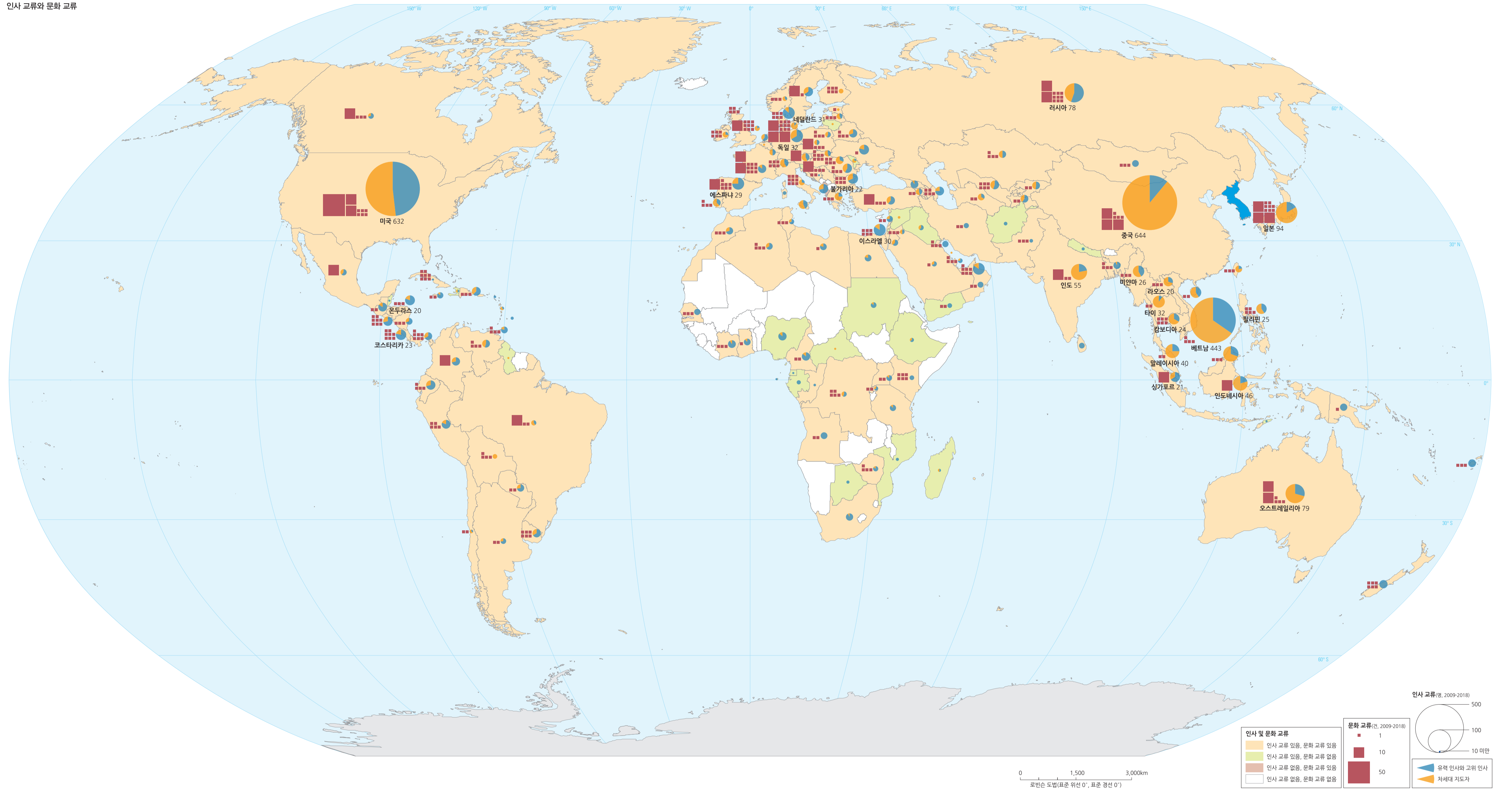


북극 다산과학기지 세부 지도



국제 교류

인사 교류와 문화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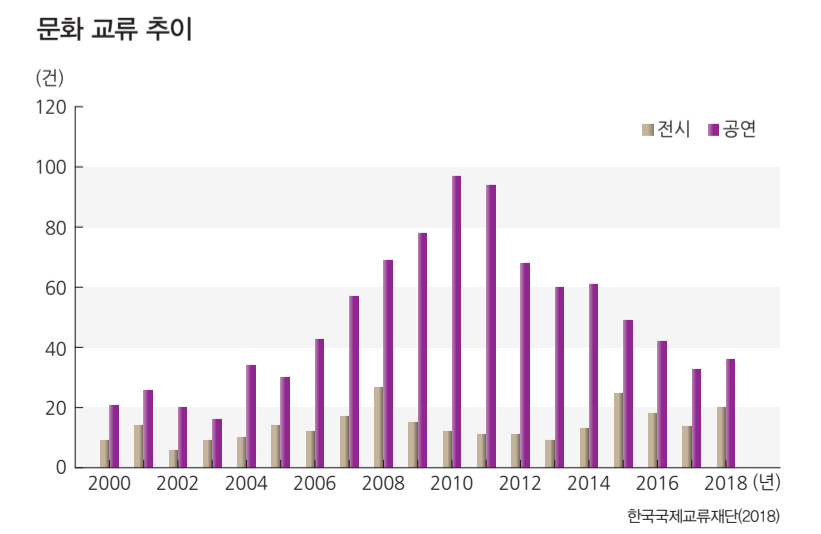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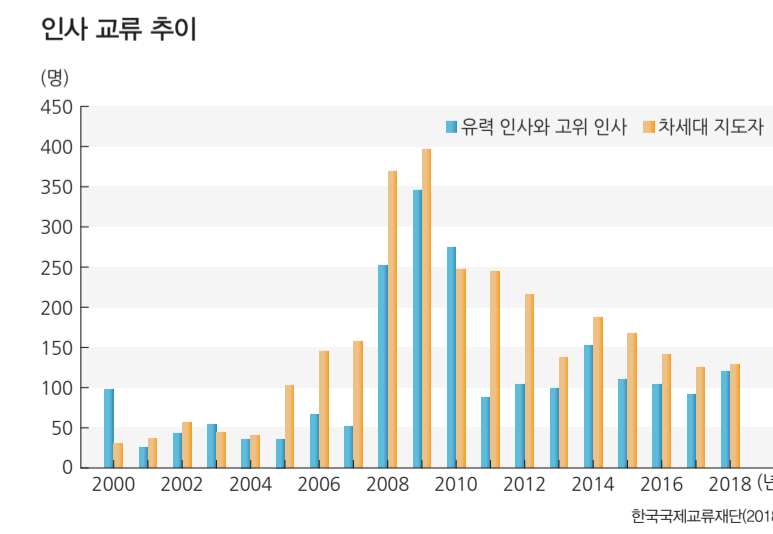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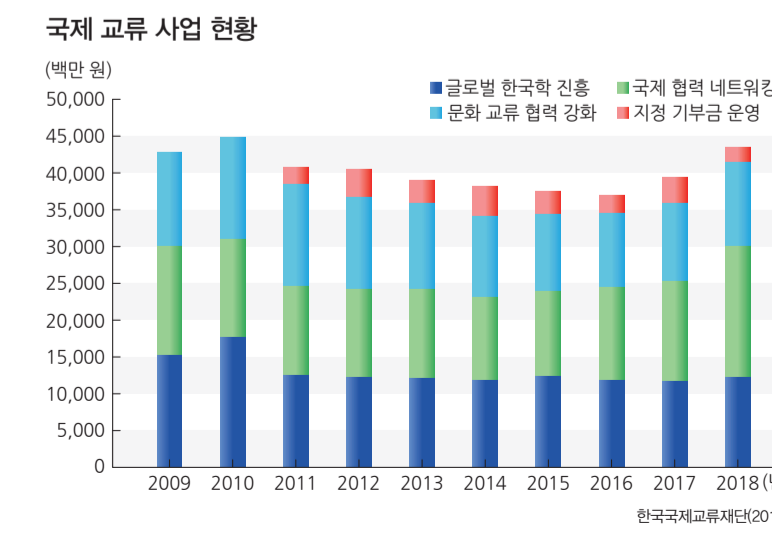
정부는 다양한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고자 1991년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을 외교부 산하 공공 외교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재단은 해외 대학에 한국학 교원과 강좌를 제공하고 한국학 전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知照) 인사를 육성하는 '글로벌 한국학 진흥' 사업과 해외 각국 지도자급·차세대 인사를 초청하고 주요 국가 정책 연구소에서 대한민국 관련 연구를 지원하며 포럼과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외교 정책 시행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해외 우수 박물관에 대한민국관 설치 및 운영

을 지원하며 출판물 영상물을 제작 배포하여 우리나라 문화 이해 증진과 문화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문화 교류 및 미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 예술을 폭넓게 다루는 문화 예술 전문 계간지인 'Koreana'를 9개 언어로 발간하며, 해외 대학, 도서관 및 연구 기관 등에 대한민국 관련 도서 및 시청각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대학 및 박물관, 도서관 등이 수행하는 대한민국 관련 활동 및 사업을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지정 기부금 운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는 350~450억 원 가량의 연간 총사업비의 사업별 사용 내역을 보여 준다.

위 지도는 '인사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해외 유력·고위 인사 초청' 사업과 '차세대 지도자 교류' 사업 실적을 보여 준다. 전자는

해외 다양한 분야의 유력 인사 및 전문가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고 국내 유관 기관 방문 및 강연회 등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호 증진과 유대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후자는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세계 각국의 젊은 지도자들과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도는 대한민국 관련 전시와 공연 실적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나라가 가진 문화 예술 역량을 보여 줌으로써 문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한류

'한류(韓流)'라는 단어가 처음 쓰일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제품을 의미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드라마, 가요 등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유럽, 남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현재는 '유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 통상 한류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한류의 시작인 한류 1.0은 1997년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 CCTV를 통해 방영된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중국, 타이완, 베트남 등에서 본격화되었다. 2002년과 2003년에 우리나라의 정서와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드라마를

통해 대대적인 성공을 다시 거두었고, 이와 함께 일본, 타이완, 홍콩 등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한류 2.0은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였고, 그 중심에는 K-pop이 있었다. 한류 2.0 시대에는 아이돌 가수가 세계 무대에 진출하였는데, 특히 미국과 유럽의 언론 및 대중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다는 측면에서 이전의 형태와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영상 전문 사이트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한류의 확산,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전 세계적인 관심, 드라마와 음악 이외의 다양한 예술 분야로의

한류의 확대 등이 한류 2.0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다.

한류 3.0 시대는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 콘텐츠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K-Culture라 한다. 기존의 한류가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일부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의미라면, K-Culture에는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류의 지역과 대상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이며, 소수의 열성 팬을 넘어 보편적인 세계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류의 교감 지역이 전 세계인 것은 물론, '전 세계인이 함께 하는 한류'라는 목표를 반영한 것이다.

한류의 시기별 특징

구분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
시기	1997~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이후
특징	한류의 태동 영상 콘텐츠 중심	한류의 확산 아이돌 스타 중심	한류의 다양화
핵심 장르	드라마	K-pop	K-Culture
장르	드라마, 영화, 가요	대중문화, 일부 문화 예술	전통문화, 문화 예술, 대중문화
대상 국가	아시아	아시아, 유럽 일부,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미국 일부	전 세계
주요 소비자	소수의 마니아	10~20대	세계 시민
주요 매체	케이블 TV, 위성 TV, 인터넷	동영상 전문 사이트, SNS	모든 매체

문화체육관광부(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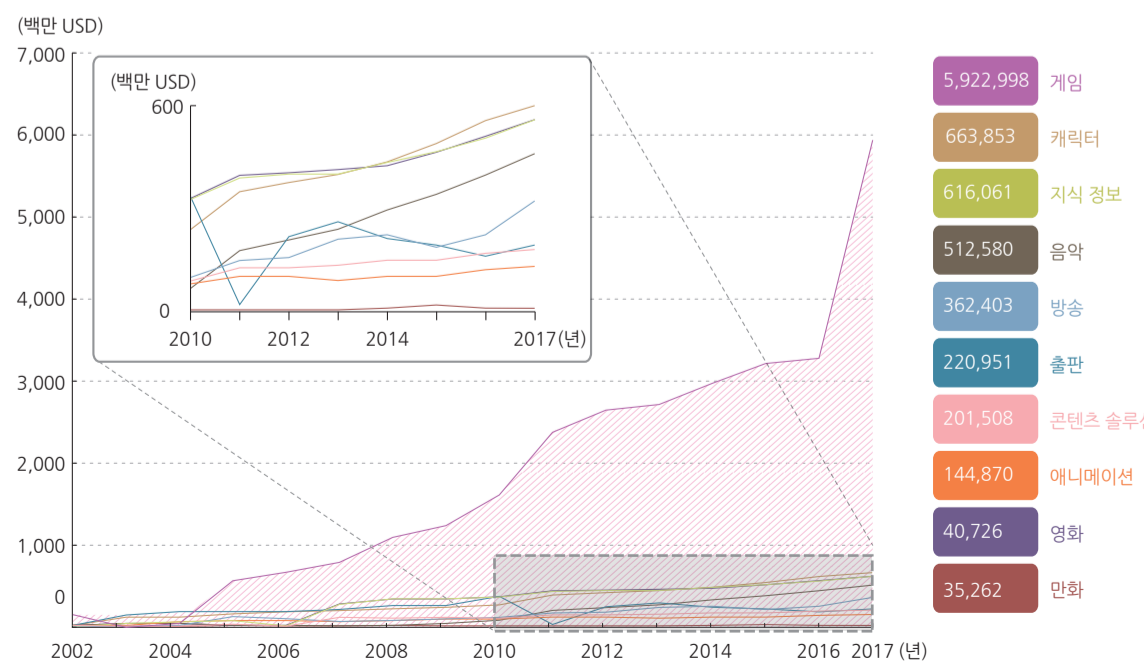


한류 열풍(프랑스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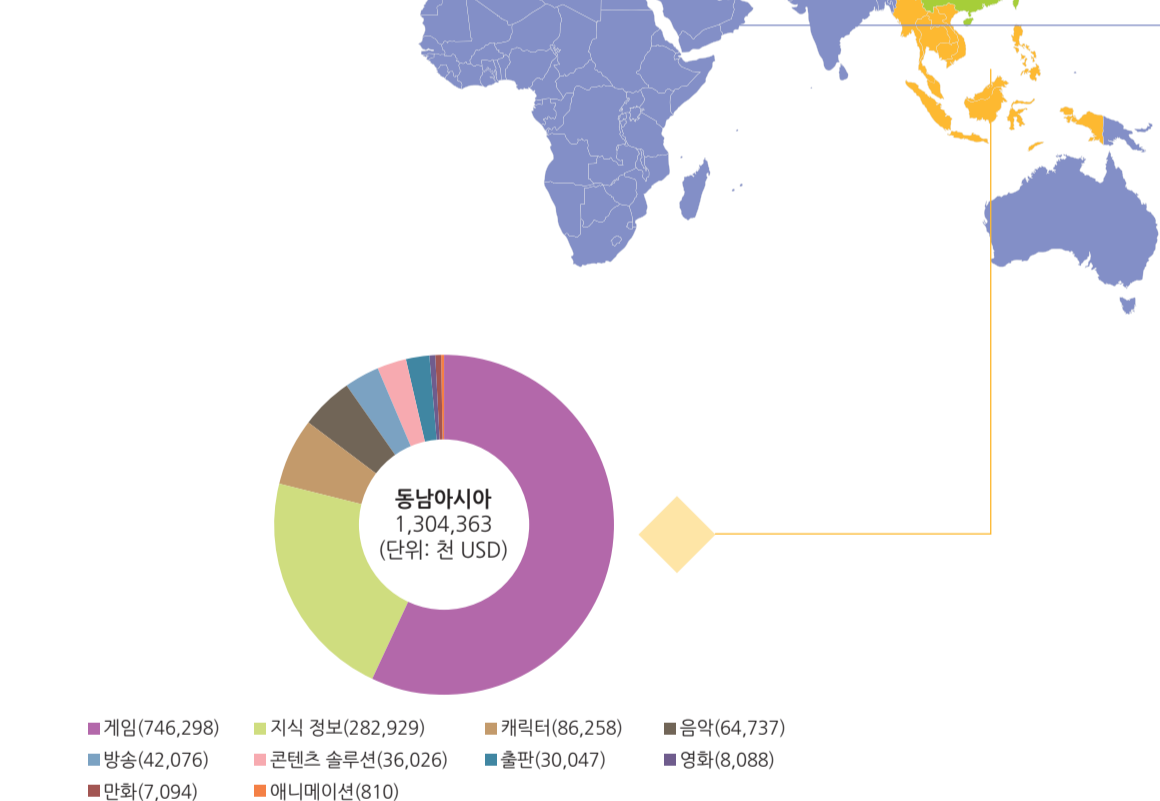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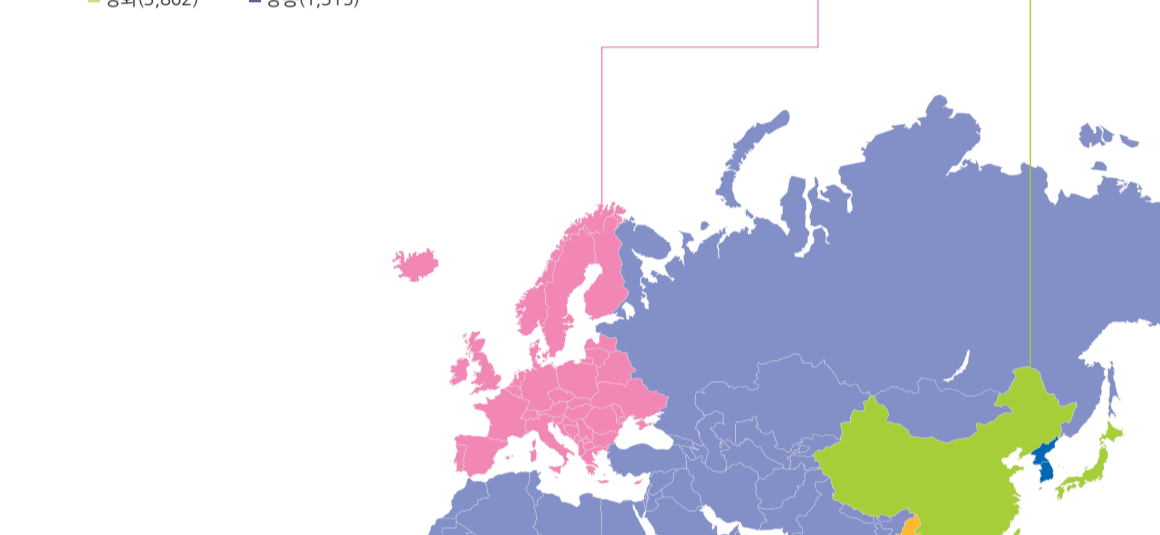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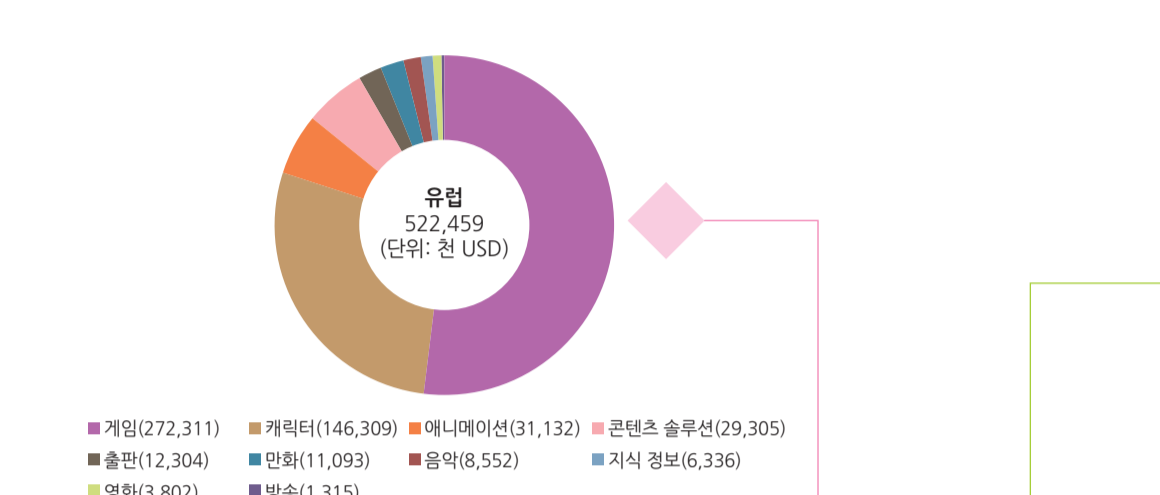
K-pop 공연

한류 콘텐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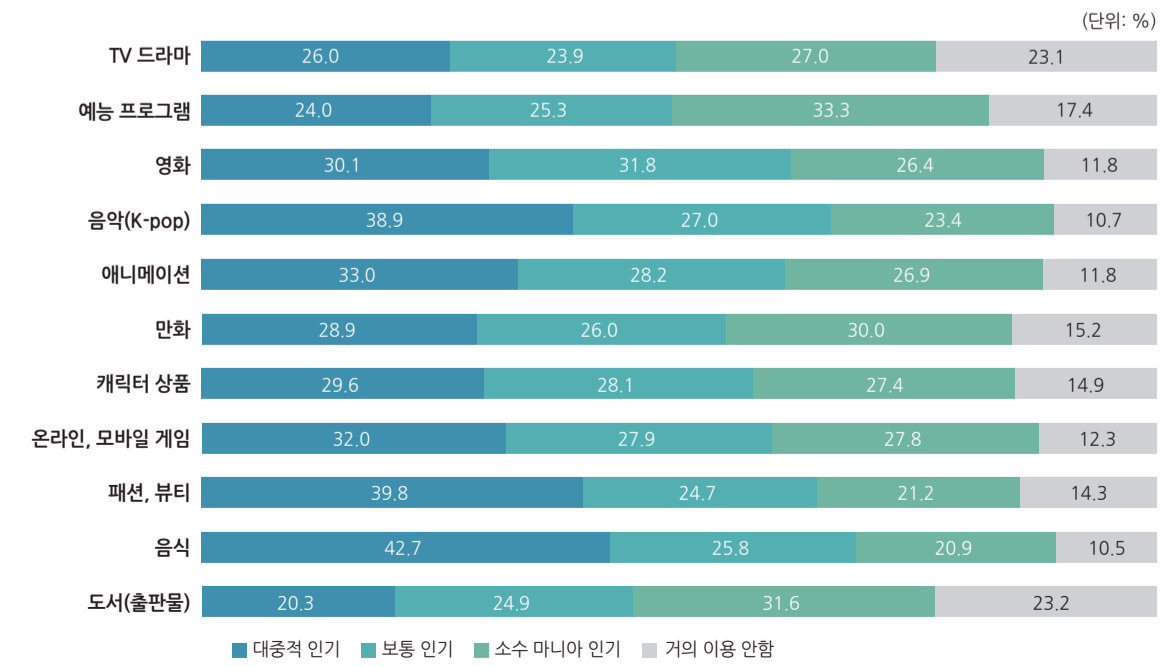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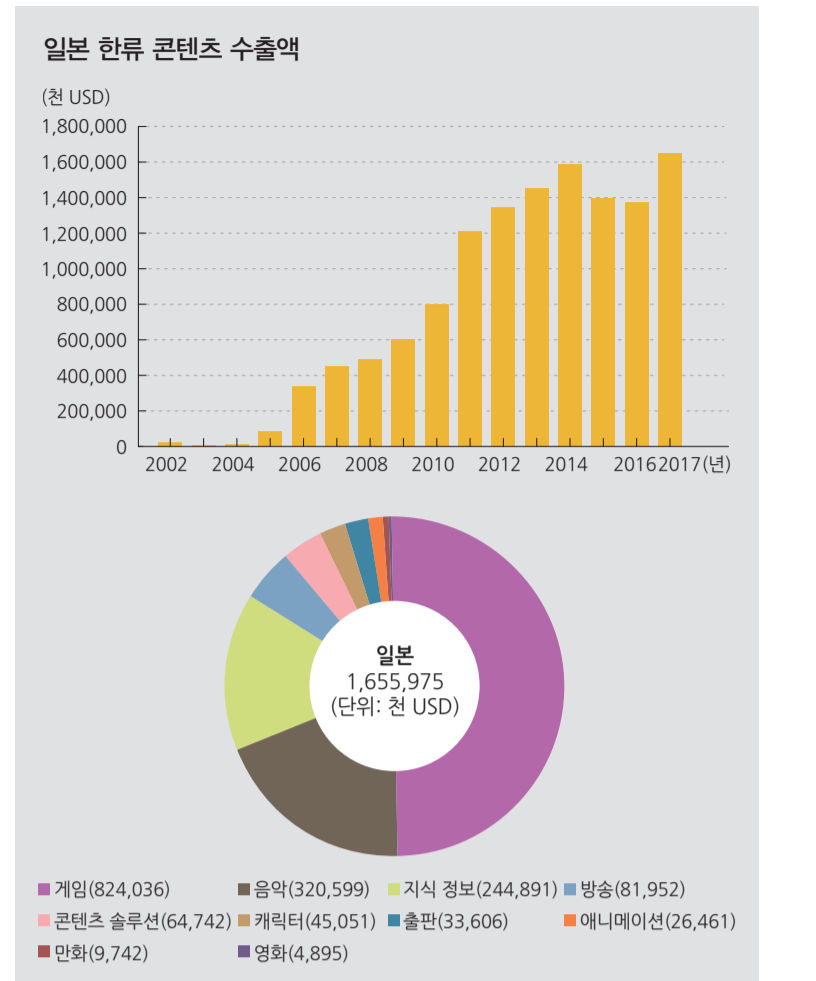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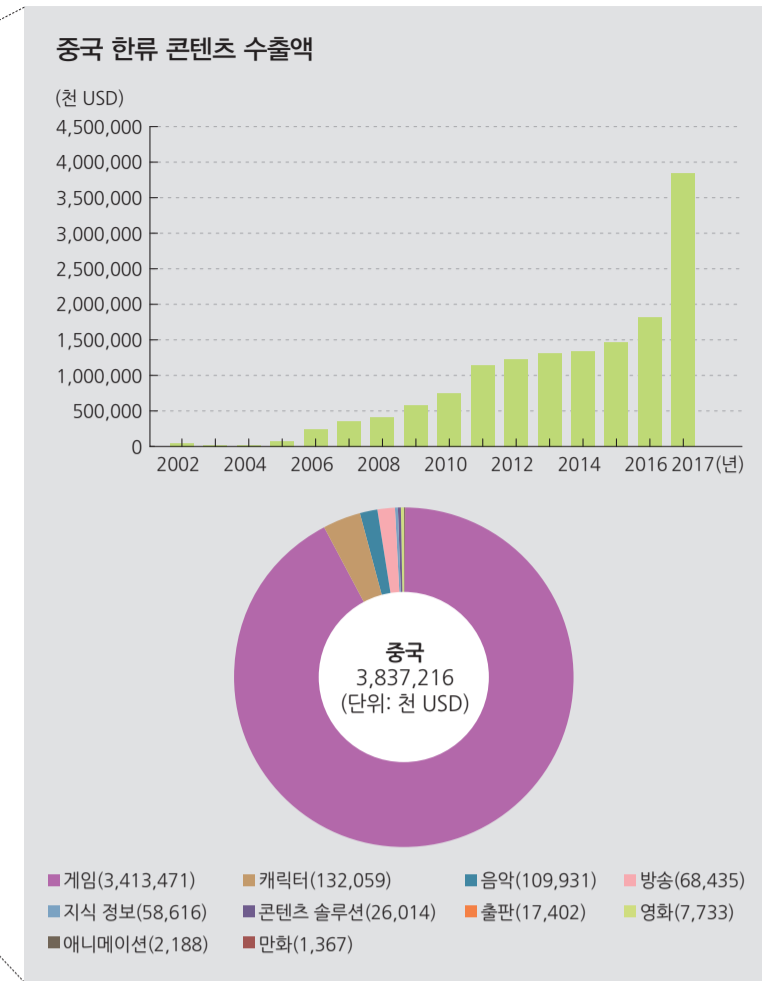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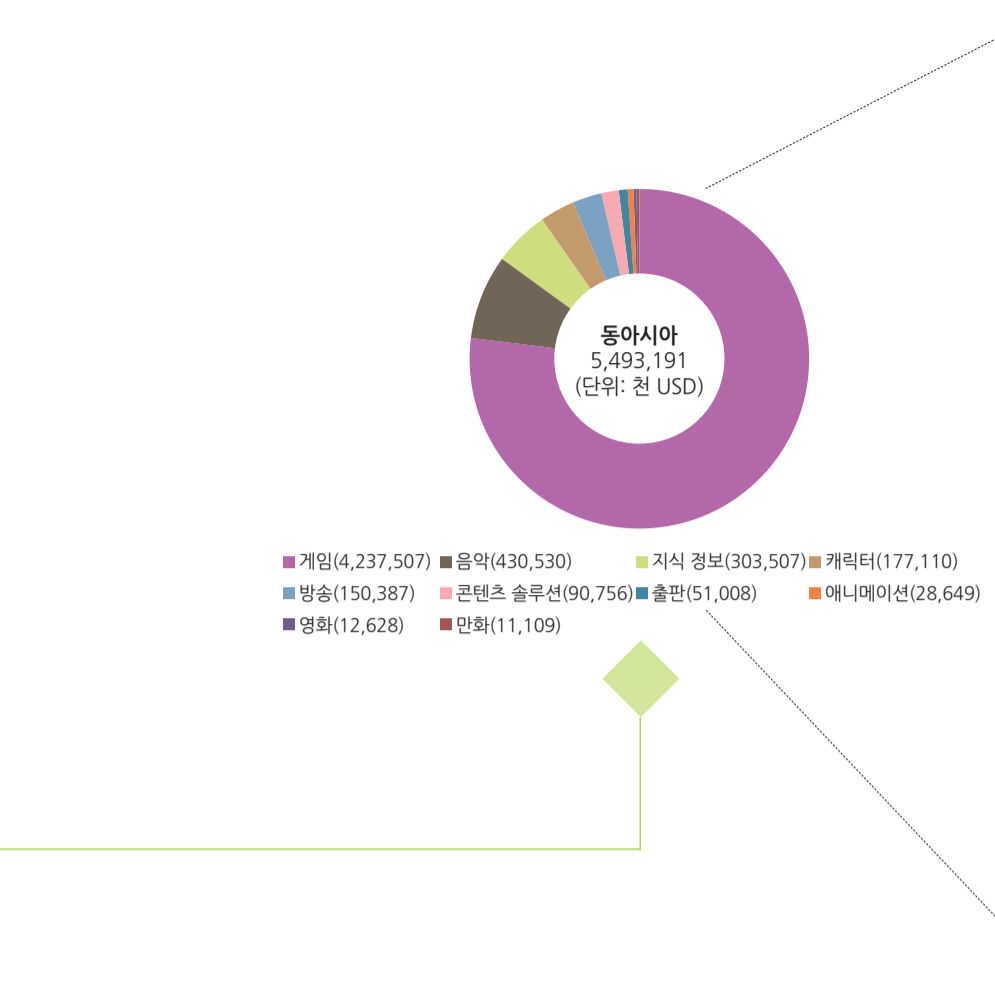
주요 한류 현황



한류 콘텐츠 인기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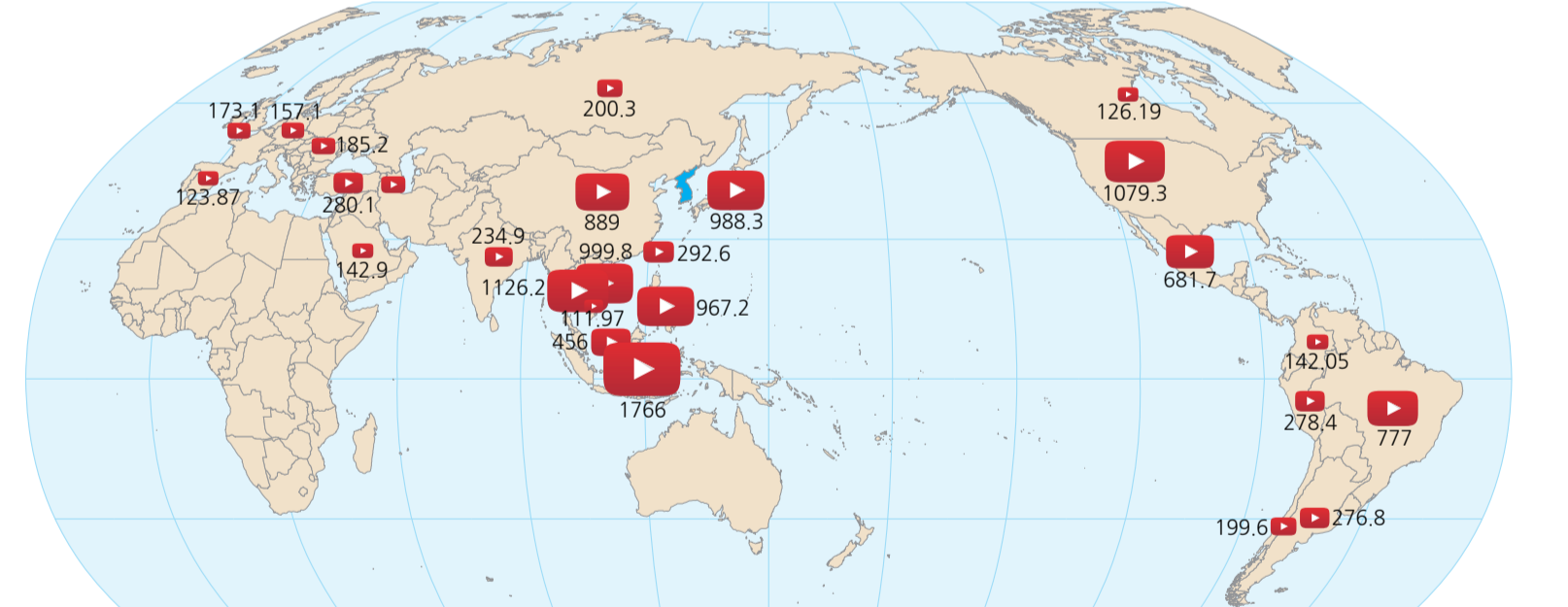


대한민국 연상 이미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2018)

K-pop 스타의 국가별 유튜브 조회 수



*주: 자료는 유튜브 차트(charts.youtube.com) 기간: 2018. 08. 29.~2019. 08. 27. 연간 조회수 10억 뷰 이상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함

(단위: 백만 뷰)

한류 중심의 문화 산업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콘텐츠 산업을 들 수 있다. 문화 콘텐츠란 창의성, 상상력, 인간의 감성 등을 바탕으로 하고, 문화 요소를 포함시켜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지식 정보, 캐릭터, 출판, 방송, 음악, 콘텐츠 솔루션, 애니메이션, 광고, 영화, 만화, 공연 등을 콘텐츠 산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게임 분야는 콘텐츠 산업 수출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식 정보, 캐릭터, 방송, 음악 등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드라마, K-pop,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즐기고, 우리나라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한류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주요 수출 지역 및 수출 비율은 동아시아 64.0%(중국 44.7%, 일본 19.3%), 동남아시아 15.2%, 북아

메리카 9.4%, 유럽 6.1%, 기타 지역 5.3%이다. 한류 콘텐츠의 인기 도는 'K-pop', '음식', '패션·뷰티' 등이 대중적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대한 연상 이미지는 'K-pop'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북한', 'IT 산업', '한식'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K-pop'은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였다. 최근 북한의 핵 관련 이슈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북한' 관련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한류를 이끌고 있는 K-pop의 영향은 유튜브 조회 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한국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에 대한 유튜브 조회 수는 세계적으로 147억 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 타이, 미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는 10억 명 이상이 대한민국 아티스트의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K-pop 뿐만 아니라 음식, 패션, 뷰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세계의 유튜브 콘텐츠를 점령하고 있다.